

지구촌시대의 교육 국제화

김성기(협성대학교 교수)

최근의 세계적 경제 위기 현상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경제는 더 이상 국지적 경제체제가 아니다. 경제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나타난다. 가히 지구촌이라 할 만하다. 이는 교통·통신·경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에 따라 교육도 영향을 받고 있다. 아무리 공교육제도로 발목을 잡아도 유학을 간다. 더 이상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교육도 예외일 수 없다. 교육 시장 개방과 유학생 수 증가, 외국인 학생의 유입 등 교육의 세계화는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공교육체제는 이러한 흐름에 수세적으로 방어하기 보다는 그 흐름을 수용하고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교육의 세계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제도적 측면의 개방이나 학생이동의 지표만으로 교육의 세계화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만은 없다. 진정으로 우리 교육이 세계화되기 위해서는 학교가 세계적 수준으로 혁신될 필요가 있다. 후술할 ‘국제학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여러 나라의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로서 그 운영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의 공교육 프로그램과는 색다르고 교육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커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교육의 세계화가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속에서 국제학교의 프로그램은 우리에게 어떤 교육적 시사점을 주는지 제시하고자 한다.

1. 세계화와 교육환경의 변화

1.1. 세계화와 한국 상황

20세기 말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로 냉전체제가 종식되어 자본은 이데올로기의 벽을 넘어 국가 간 수교와 교류를 이끌어왔다.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불을 넘어서고, OECD에 가입하는 등 국제적 위상이 높아져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IMF 구제 금융 사태'를 맞이하고 말았다. 박정희 정부 하에서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성장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자본은 국가의 보호와 지원 하에서 확대재생산의 길을 걸어왔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의 보호와 지원이 없이 강대국의 거대자본과의 경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WTO의 출범과 IMF 구제 금융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은 개방을 위한 각종조치가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상품, 자본, 서비스 등 각종 영역에서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1.2. 교육시장개방과 교육개혁

자본이 주도하는 세계화, 개방화로 인한 국내외 질서의 변화 속에서 교육부문 역시 예외가 아니다.

1.2.1. 교육시장개방의 과정

WTO의 협정은 크게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그리고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시장개방은 GATS와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데, 서비스 협상은 농업협상과 함께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기설정제로서 2000년부터 협상을 재개하도록 결정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2000년부터 서비스이사회 특별회의를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되었다.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각국의 노력으로 '도하 개발 의제(Doha Development Agenda)'를 채택하여 새로운 협상 일정이 도출됨으로써 서비스협상이 본격화되었다. 서비스협상 일정을 보면 각국이 최초

양허요청안(Initial Request List)을 2002년 6월 30일까지 제출하면, 이에 대하여 해당국이 최초 양허안(Initial Offer List)을 2003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고, 2005년 1월 1일까지 협상을 완료하는 것이다.

DDA 교육서비스 협상은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데, 외국 교육서비스 및 교육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시장접근상의 제한 및 내국민 대우상의 제한을 제거하여 교육서비스 교역을 원활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서비스 협상은 개방하고자 하는 교육서비스 분야 및 서비스 공급형태를 결정하고 그 분야에서 시장접근상의 제한이나 외국인 차별조치를 찾아내어 상대국과 협상을 통하여 유지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GATS는 국가 간에 서비스가 공급되는 형태를 4가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를 교육 분야와 연관하여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GATS 국가 간 서비스공급형태 및 교육 분야 사례

구분	정의	교육 분야 사례
Mode 1 국경간 공급	한 회원국의 영토로부터 다른 회원국의 영토로 서비스 공급	원격교육
Mode 2 해외 소비	한 회원국의 영토에서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 소비자에게 서비스 공급	유학
Mode 3 상업적 주재	타 회원국의 영토 내에 상업적 주재를 통하여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 공급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Mode 4 자연인의 이동	타 회원국의 영토 내에 자연인의 주재를 통하여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 공급	외국인 교수/교사의 이동

교육서비스는 기본적으로 W/120분류에 기초하여 초등, 중등, 고등, 성인, 기타 교육서비스로 분류되는데, 일반적으로 서비스 협상에서는 UN CPC분류를 참고하여 양허표(개방계획서)를 작성한다.

○ 초등교육(921)

- 취학전 교육(92110) : 초등학교 이전 교육 서비스
- 기타 초등 교육(92190) : 첫 단계의 기타 초등학교 교육 서비스

○ 중등교육(922)

- 일반 중등교육(92210) : 중등단계의 첫 번째 수준의 일반 중등교육 서비스
- 고등학교 교육(92220) : 중등단계의 두 번째 수준의 일반 학교교육 서비스
- 기술·직업 고등학교교육(92230): 대학단계이하의 기술 및 직업 교육서비스
- 장애 학생들을 위한 기술 및 직업 고등학교형태의 교육(92240) : 대학 단계 이하의 장애 학생들의 가능성과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기술 및 직업 중등학교형태의 교육서비스

○ 고등교육(923)

- 중등 이후의 기술 및 직업교육(92310) : 중등 이후, 하위 학위 단계의 기술 및 직업 교육 서비스
- 기타 고등교육(92390) : 대학 단계 또는 그와 동등한 단계의 교육 서비스

○ 성인교육(924)

- 정규 학교 및 대학 체제 속에 있지 않은 성인을 위한 교육서비스

○ 기타교육(929)

- 다른 데서 분류되지 않는 특정 주제에서의 초·중등 수준의 교육서비스와 단계별로 규정할 수 없는 모든 기타 교육 서비스

한국정부는 DDA협상일정에 따라 2002년 6월에 최초양허요청안을 제출하였는데, 교육부문은 11개국에 제출하였으며, 동시에 9개국으로부터 양허요청을 받았다. 한국정부는 고등, 성인, 기타 교육서비스의 일부 부문 및 일부 공급형태에 대하여 11개국에 개방요청을 하였다. 반면 외국이 양허 요청한 것을 보면 주로 고등, 성인, 기타 교육서비스 분야의 교육개방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초·중등 분야의 교육개방도 요구하고 있다. 이후 상호간에 양허요청안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차례 상대국과 양자협상이 진행되었다. 한국정부는 2003년 3월에 교육부문 1차 양허안을 제출하였다. 초·중등교육은 공공성을 고려하여 1차 양허안에서 제외하고, 고등·성인교육에 한하여 현행 법령상의 제한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1차 양허안을 제출하였다.

<표 2> 고등교육과 성인교육 분야 양허안의 주요골자

고등교육	성인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유학 허용 - 비영리형태의 학교법인 유지 - 보건·의료 인력 양성대학, 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 등 제외 - 수도권 지역 학교 신설 제한 - 외국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한 등 내·외국인 차별권한 유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유학 허용 - 학위과정과 관련된 과정 제한 - 정부지원에 의한 직업훈련 제외 - 학원의 교습과정 중 보건·의료 관련분야 제외 - 외국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한 등 내·외국인 차별권한 유보

1차 양허안 제출 이후 협상 일정에 따라서, 일본, 호주, 미국, EC, 뉴질랜드 등 총 9개국과 양자협상을 실시하였다. 협상은 우리 1차 양허안 내용과 제한 필요성을 상대국에게 설명하고, 상대국의 양허안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2.2. 교육개혁의 계기로서 교육개방

교육개방을 교육경쟁력 강화, 수요자의 교육서비스 선택권의 확대, 고급인력과 외화의 해외유출 감소 등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계기로 보고 적극적으로 교육개방을 찬성하고 추진하려는 집단이 있는 반면, 교육개방이 교육비 상승 및 교육 불평등의 심화, 교육주권의 상실 및 지적 식민지화, 교육노동자의 신분 불안정 등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반대하는 집단이 있다. 전자는 교육을 소비자의 주권으로 보고 시장의 원리에 맡기는 것이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반면 후자의 경우는 교육을 공적 영역으로 보고 사회적 기본권 차원에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시각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관료적이고 획일적으로 교육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모두 비판적인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

일류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위주의 획일적 교육의 문제는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교육 불평등의 심화, 지적 종속 등의 문제를 완화하면서 고질적인 교육문제를 해소하고 시대적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개방의 문제를 적극적인 교육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 개혁은 전적으로 시장원리에

말하기보다는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가 나서서 교사와 학부모 등과 함께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문만 열어놓는다고 교육이 세계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교육의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것이 교육국제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이하의 국제학교 프로그램은 많은 시사점을 주리라 생각한다.

2. 국제학교 프로그램

위와 같은 교육의 세계화 전략은 여러 측면에서, 예컨대 교육내용의 세계화, 국가간 교수·학생(학점)교류 등으로도 접근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무엇보다도 학교의 세계화가 필요하다. 대학입시경쟁에 초점을 맞추어 학교를 운영하고 교육을 하는 현재와 같은 모습은 글로벌 시대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다양한 국제적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 그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국제적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교육기관 유치와 국제고등학교 설립, 경제자유구역 외 교육특구의 국제적 학교 설립 등이 그것이다.

외국인학교나 국제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을 인증(accreditation)하는 조직으로는 유럽국제학교협의회(European Council of International Schools)와 미국서부학교연합회(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국제기독교학교연합회(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 국제학위기구(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 등이 있다. 앞의 세 기구는 지역이나 성격이 한정되어 있으며, 가장 국제적인 기구는 국제학교(International School)를 운영하는 IBO라 할 수 있다. IBO 교육 프로그램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 IB 교육과정 본부의 위상과 역할

IB는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의 약자로서 국제졸업인증 또는 국제학력인증 교육과정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IB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기관은 IBO(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이다. 다양한 교육프로

그램과 타문화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국제적인 균형 감각이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1968년에 설립된 국제인증기구인 IBO는 초·중등 단계의 국제적인 인증프로그램을 전세계에 제공하고 있다. 2006년 현재 122개국 1,752개의 학교에서 3세에 19세까지의 학생들 200,000명이 국제학교 인증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가입된 상태인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2개의 외국인학교만이 가입되어 있을 뿐 정규학교는 가입되어 있지 않다.

IBO는 최고의사결정 기구의 위상을 지니는 재단평의회(Council of Foundation)를 두고 있으며 이 위원회는 16명의 의원을 두고 있다. 이 단체의 재정은 주로 IB 학교를 인가해주면서 받는 회비에 의해 충당하고 있다. IB 교육과정 본부로서 IBO는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를 교육과정, IB 교사교육, 교육평가 등의 측면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 측면에서, IBO는 초등과 중등교육 프로그램 및 각 교과 영역에서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 지침을 제공한다. 기본적으로 IB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IBO가 개발한 교육과정이므로 IBO는 전체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이를 교육과정 계획이라 함)하는 동시에 각 교과별 교육과정을 지침을 개발하기도 한다. IB 교육과정은 IBO가 갖고 있는 고유한 교육철학에 근거한 것이다. 이에 IBO는 IB 교육과정의 목적이 무엇인지 개발하는 역할을 맡는다.

둘째, IB 교사교육 측면에서 IBO는 IB 회원교들의 교사교육 워크숍을 운영한다. 교육과정은 그것을 이해하고 교실에서 실행에 옮기는 역할을 담당하는 교사를 배제하면 온전히 논의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IBO는 전 세계에 걸친 IB 회원교 교사들이 교육적 자원(교육자료 등), 영역별 전문가, 토론(교사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등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셋째, 교육평가 측면에서, IBO는 특히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그 이유는 학생들이 과연 IB 교육과정의 목표를 달성하였는가를 평가할 필요가 있고 또 이를 인증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IBO는 디플로마(고교졸업) 과정에서 학생들이 학업을 잘 수행하였는지에 대해 외부평가(학교자체시험이 아니라는 개념으로)를 실시한다. 물론 해당학교에서의 교육활동과 수업을 존중하기 위해

내부평가(학교자체시험)를 권유하기도 하는데 이때 역시 내부평가를 위한 절차를 제공한다. 학생이 디플로마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학력인증은 보통 외부평가와 내부평가 결과를 합산한 결과에 의해 정해진다. 이러한 역할인식에 더해 IBO가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IBO 개발 교육과정
<p>① 고교졸업 프로그램(Diploma Program): 이 과정은 보통 DP라고 불린다. 후기중등 프로그램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말은 중등교육과정상에서 후기에 해당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약 2년 동안의 프로그램으로 - 대학입학 2년 이전 단계 - 이는 대체로 고등학교 교육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의미한다.</p> <p>② 중간연령단계 프로그램(Middle Year Program): 약자로 MYP라고도 불리며, 약 11세에서 16세 사이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이다.</p> <p>③ 유·초등연령단계 프로그램(Primary Year Program): PYP라는 약자로도 불리며, 약 3세에서 12세에 이르는 아동들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이다.</p>

각 학교급과 이에 대응되는 학생 연령은 유럽식 교육제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2. IB 교육과정 목적

모든 교육과정은 그것이 어떤 인간 교육을 지향하는가에 대한 철학에 기초하고 있다. 그래서 교육과정 개발에서 가장 먼저 하는 작업 중 하나는 바로 교육과정 목적(curriculum goal) 개발이다. IB 교육과정은 흔히 국제 수준의 교육과정에 대한 세간의 해석과 거리가 있다. 보통 세간의 해석중 하나는 “능통한 영어실력과 수월성 있는 국제적 인재의 양성이 오늘날 시대가 요구하는 필요불가결한 것이다”라는 논리이다. 그러나 IB는 이러한 경쟁논리보다 교육적인 논리를 가진 교육 목적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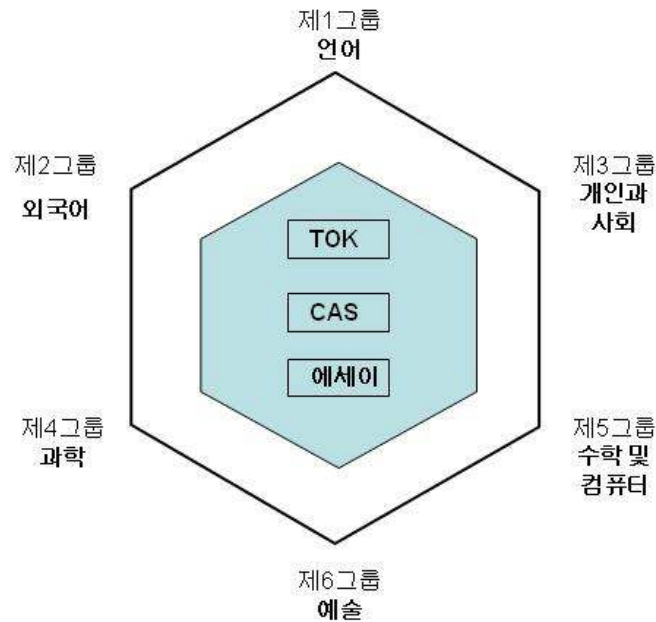
IB 교육과정 철학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우리가 사는 세계를 보다 평화롭고 바른 곳으로 만들기 위해 교육적으로 노력하는 것에 있다.

이에 IB 교육과정을 개발한 IBO는 단체의 정체성에 대해 “세계평화와 바른 사회를 위해 탐구력이 있고, 충명하고, 남을 잘 배려하는 학생들을 계발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래서 IBO가 밝히는 IB 교육과정 목적은 학생들을 활동적이고(active), 인정 있는(compassionate) 평생학습자로 성장시키는 동시에 서로 상이함을 지닌 타인들도 역시 옳을 수 있음을 이해하도록 기르는 것이다.

2.3. IB 교육과정 설계원리

IB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설계원리는 중핵 교육과정 개발에 있다. 이는 IB 6각 모형에도 잘 도식화되어 있는 것이다. 중핵 교육과정으로서의 IB 프로그램은 두 개의 층위를 이루고 있는데 우선 전체 교육과정의 중핵은 Theory Of Knowledge(지식론: 문제중심, 홀리스틱한 접근이 필요한 지식의 습득), Creativity·Action·Service(창의성·실천·봉사), 장편 논문(약 4,000단어 정도의 대학단계의 연구를 위한 자기소개 에세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IB 교육과정 목적에 기초한 철학적 가치에 초점을 두고 있고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협력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고무하고 있다. 교과를 배운다는 것은 결국 교과지식을 익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라기보다 배운 것을 개인의 삶과 사회적 삶에 결부시킬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과정 설계원리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IB 교육과정의 내부 중핵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배운 지식에 대한 철학적 인식(지식론을 통해) ② 배운 지식의 사회적 활용(봉사활동을 통해) ③ 배운 지식의 학문적 재창조(장편 논문을 통해)



둘째, 두 번째 중핵은 6각 모형의 각 꼭지점이 가리키는 각 교과영역에 있는 과목을 전부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및 학생 스스로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학교는 학교의 여건에 맞게 과목을 마련할 수 있다. 이에 6각 모형 외부 층위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며 선택된 교과를 심화 학습할 것인가 아니면 기본 학습만 할 것인가 역시 학생이 결정한다. 이때 교사는 학생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조언해주기도 한다.

이상을 종합할 때, IB 교육과정은 교과 또는 학과목에 대한 교육과정을 외부의 층위에 두고 인성과 지식론 위주의 교육과정을 내부에 둬으로써 경험과 교과를 적절히 통합한 교육과정이다. 이를 통해 사회, 개인, 학문이라고 하는 세 축을 통합시키고자 의도한 교육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인성과 철학적 사고를 전체 교육과정의 중핵(6각 모형 내부)으로 삼고, 또 각 교과영역 중에서 한 과목만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선택된 과목은 각 꼭지점에 위치한 학문영역의 중핵으로 삼는 중핵교육과정 모형에 기초하고 있다.

2.4. IB 교육과정의 특징 및 운영방안

가. 수준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 ① 학생들은 총 6개군에서 최소한 하나의 과목을 선택한다.
- ② 교육과정 수준은 보통단계(standard level)과 고급단계(high level)로 구분한다.
- ③ 학생들은 적어도 3개(그리고 4개 이하) 교과목을 고급(HL) 단계에서 수강한다.
- ④ 나머지 교과목은 보통(SL) 단계에서 수강한다.
- ⑤ 고급단계 교과목은 최소 240시간의 수업시수를 이수한다.
- ⑥ 보통단계 교과목은 최소 150시간의 수업시수를 이수한다.

0 고급단계 교과목: 240시간은 한국식으로 약 15단위임
 0 보통단계 교과목: 150시간은 한국식으로 약 9단위임

나. 6 과목군 및 해당 선택 교과목

IB 교육과정은 6각모형의 각 꼭지점으로 나타낸 6개의 주요 학습 분야가 있다. 이를 과목군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각 과목군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제1과목군-언어(language A1, 모국어): IBO는 우선 자국어(우리의 경우는 한국어)에 대한 글쓰기 능력과 발표 능력을 탁월하게 길러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학생들은 모국어(우리의 경우 한국어)에 대한 교양 및 유산을 존중해야 한다는 견지에서 우리말, 우리글에 대한 수업을 받아야 한다.

② 제2과목군-제2언어(second language, 외국어): 제2과목군에서 외국어를 가르치는 주요 목적은 학생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외국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외국어 수업은 글쓰기와 말하기를 통한 의사소통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한국에서는 영어가 외국어에 해당한다.

③ 제3과목군-개인과 사회(individuals and societies): 제3과목군에서의 교과목은 경영, 경제, 지리, 역사, 이슬람 역사, 정보공학(SL, 즉 보통단계에서만), 철학, 심리학, 사회 및 문화 인류학 등이다. 제3과목군은 인문학적이고 사회과학적인 안목과 이해를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④ 제4과목군-실험 과학(experimental science): 제4과목군에서는 생물학, 화

학, 물리학, 환경공학(SL, 즉 보통단계에서만), 설계공학 등을 수강할 수 있다. 실제적 실험 능력이 이 단계에서 길러지며 이 때 간학문적 및 협력적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협동학습을 조장한다.

⑤ 제5과목군-수학과 컴퓨터 과학군(mathematics and computer science): 수학 과목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단, 학생들의 상이한 능력과 관심수준에 따라 4가지 선택지가 가능하다. 이 선택 수준은 일반수학 HL, 심화수학 SL, 수학적 방법론 SL, 수학연구 SL 등 네 가지이다. 교육목적은 학생들의 수학적 이해(학문으로서의)를 돕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학적 언어(기호, 용어)사용에 있어서 자신감을 길러주고 계산 능력을 신장해준다. 컴퓨터 공학은 이 단계에서 선택교과이며 필수교과 - 수학처럼 - 는 아니다.

⑥ 제6과목군-예술(arts): 이 단계에서는 시각 예술, 음악, 무대 예술 등을 배우게 되는데, 이는 전 지구적(global) 맥락 속에서 광범위한 창의적 활동을 탐구함으로써 실제적인 예술 산출물을 내는 교육활동에 강조점을 둔다.

이상과 같은 6각 모형이 나타내는 6과목군 이외에 SBS라고 하는 예외조항이 있다. 학교기반 강의요목(school-based syllabus, SBS)은 IBO 교육과정·평가센터와 협의 하에 개별 학교에 의해 설계된다. 그리고 IBO로부터 이를 공식적으로 승인받아야 한다. 학교는 보통 표준단계에서 SBS를 설계하는데 그것은 이상에서 밝힌 과목군 2, 3, 4, 6중에서 하나를 대체할 수 있다.

다. 필수 교육과정

(1) TOK(지식론)

① TOK의 정의: 학생들이 수업 안팎에서 얻는 지식과 경험에 대해 비판적으로 반성(reflection)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② 목적: 이 과정은 학생들에게 지식의 토대(그것이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인식론적 학습을 고무시키기 위함이다. 또 이성적 판단으로 표현된 증거를 분석하는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과정이다.

③ 수업기간: 2년 동안의 프로그램에 걸쳐 최소한 100시간 이상 TOK 코오스를 가르칠 것을 권장한다.

(2) CAS(창의성, 실천, 봉사)

① 목적: 전인적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책임감 있고 열성적인 시민으로 자라나도록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학생들은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자신은 물론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대한 의식을 확보한다. 그래서 타인과 협력해서 일을 수행해나 갈 수 있는 원만한 인격을 기른다.

② 활동: CAS 프로그램은 일종의 봉사활동으로서 학생들이 자신의 특별한 재능을 남과 공유할 것을 고무시킨다. 학생들은 예를 들어, 연극이나 뮤지컬을 만드는 일, 스포츠, 공동체를 위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한다.

③ 투입시간: 2년 동안 매주 3-4시간에 노력을 들여야 한다.

(3) 4,000 단어 장편 논술(extended essay)

① 정의: 특별 관심 주제(SI)에 대한 장편 논문 형태의 연구물

② 수준: 장편 논술은 학생들 개개인의 독립적인 연구 및 대학에서 요구하는 글 쓰기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③ 투입시간: 약 40시간 이상의 노력을 들이도록 해야 한다.

④ 주제: 장편 논술을 약 60여 가지 주제 중 하나에 대해 쓸 수 있다.

⑤ 교과목과의 연계성: 장편 논술은 학생들에게 IB 교과교육과정을 더욱 심화시키도록 해준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고급(HL) 코스 중 하나를 논술 주제로 선택해서 그것을 심화해 나갈 수 있다. 또는 학생들은 그들이 선택한 프로그램 선택지(choices)에 포함되지 않은 주제를 써나감으로써 그들의 경험 폭을 확장해 나갈 수 있다.

<예시> 한 학생의 필수교육과정의 투입시간을 한국식 단위수로 계산하면,	
0	TOK 약 6단위/CAS 약 14단위/장편논문 약 2단위로 볼 수 있으며
0	이를 합산하면 약 22단위 정도로 환산할 수 있음.
0	이에 선택교과목 78단위를 합산하더라도 약 100단위 정도임.
0	이는 한국 고등학교의 총 단위수 216단위, 또는 2년간 144단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업시수임.
0	그러므로 학생들이 학교수업외의 삶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많은 교육과정으로 볼 수 있음

서울 외국인 학교 IB 교육과정 설계 사례는 다음과 같다.

	SL(표준수준)	HL(고급수준)
제1그룹 언어A	영어	
제2그룹 언어B	프랑스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제3그룹 개인과 사회	20세기 역사 심리학 경제학 글로벌 시대의 정보공학	20세기 역사
제4그룹 실험과학	생물, 화학, 물리	생물, 화학, 물리
제5그룹 수학	수학적 방법론(Math Methods) 수학연구(Math Studies) 전산학(Computer Science)	수학(Mathematics)
제6그룹 예술	음악, 미술	음악, 미술

* IB 교육과정 지침에 따르면 학생들이 이상의 표에서 나타난 모든 과목을 수학하는 것이 아니고 택 1을 하도록 되어 있다.

2.5. IB 평가방법

가. 평가의 원리와 절차

IB 교육과정의 필수적인 요소는 세계적으로 비슷한 성취기준을 가지고 있음에

있다. 물론 외부 평가자(external examiners)들은 개별 학교의 문화적 전통을 반영하고자 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같은 성취기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얼마나 성취했는지 알아보기 위한 노력은 다양한 학습 유형과 문화적 차이성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 IBO의 설명이다.

전형적으로 IB 프로그램은 IB 디플로마 과정이 끝나는 시점까지 6 과목의 시험이 실시된다. 집중이수를 하는 경우, 그것이 끝나는 학기에도 시험은 실시될 수 있다. IB의 외부 평가(external examination)는 말하기, 단문 쓰기, 장문 에세이, 객관식 시험 등이 다양하게 활용된다.

외부 평가자가 시행하는 평가는 개별 IB 회원교의 일선 교사들의 평가 방식을 보완하도록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해당 학교 교사들이 활용하는 평가의 중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IB 프로그램의 기본 방침이다. 이는 단 한 번의 최종 평가만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 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편이다. 그래서 약 20% 정도의 비중으로 내부 평가가 반영된다. 여전히 외부평가(80%)의 비중이 높은 것은 국제적인 수준을 공평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볼 수 있다.

일선 교사들과 IB 시험관(examiners)은 협력 하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의 업무는 학생들에게 그들이 배운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풍부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점수(grade)는 모든 학교에 공히 적용하는 성취기준에 적합한 지식과 능력을 획득했느냐를 나타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고 점수는 정해진 비율의 학생들에게만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즉, 성취기준에 합당하면 누구라도 최고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 점에서 IB의 평가는 성취기준평가 혹은 절대평가를 활용한다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이 수행한 것의 질을 평가함에 있어서 모든 학문적 판단(학생들의 학업적 성취에 대한 판단을 말함)에 대한 책임은 세계 도처에서 활약 중인 약 4,400명의 IB 시험관에 의한다. 이들의 활동은 그들의 학문적 영역마다 국제적 권위(공인)를 가진 최고 시험관(chief examiners)에 의해 관장된다.

<참고> 국내 A 외국인학교 교장과의 인터뷰

- 0 매년 디플로마를 획득하기 위해 신청한 학생의 약 80%가 졸업증을 받음. 시험은 매년 북반구에서는 5월, 남반구에서는 11월에 시행됨.
- 0 시험의 언어가 영어인 관계로(한국에서 선택할 공산이 큰 언어임) IB를 도입할 경우 80%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임.
- 0 한국은 제1언어가 영어가 아니므로 IB 교육과정 도입의 성공 여부는 평가결과에 의해서도 가름될 것임.
- 0 이에 영어교육을 병행해 나갈 때, IB 교육과정 운영이 성공할 수 있을 것임.

3. 결론: 교육의 세계화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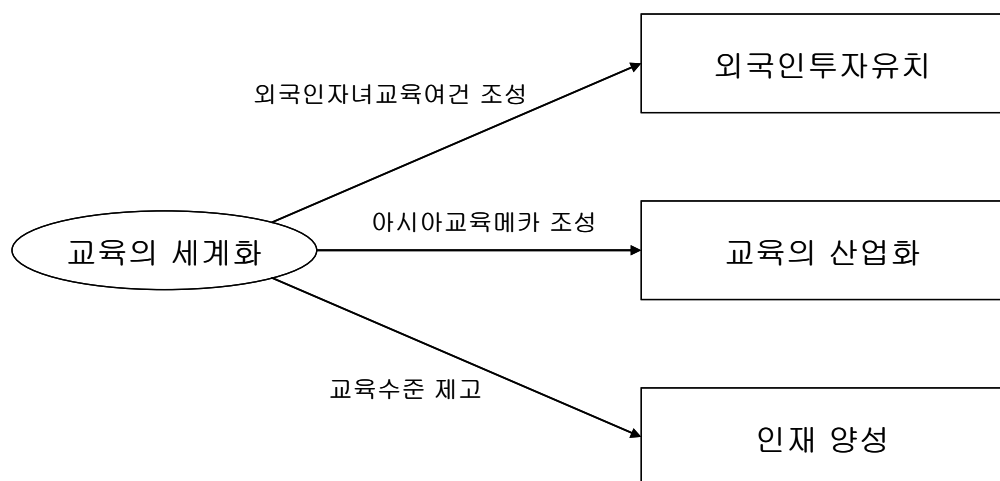
변화하는 국내외의 급격한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이며 주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체제의 구축과 새로운 교육개혁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WTO체제의 출범과 교육서비스 분야의 일반협정이 도하 아젠다에 의해 채택된 이후 교육개방의 속도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교육시장의 개방에 대한 찬반의 논리가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개방으로 인해 맞이하게 될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현실이고 보면, 교육시장의 개방은 피할 수 없는 도전이고 이에 대한 대응이 보다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관료적인 통제와 획일적인 교육이라는 고질적인 병폐를 여전히 안고 있는 우리 공교육의 현실에서는 오히려 교육시장의 개방이라는 새로운 도전이 이러한 고질적인 교육의 병폐를 새롭게 치료할 수 있는 교육개혁의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보다 능동적인 시각이 필요한 때이다.

개방으로 인해 맞이할 지도 모르는 교육적 불평등의 심화나 대외종속 등의 문제를 완화해 나가면서 동시에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외국어 교육, 국제이해 교육 등의 강화를 통한 보다 효율적인 국제화 교육의 필요성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교육개방의 추세 속에서 이제 공교육을 적당히 시장원리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이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나 지역자치단체가 나서서 교사와 학부모 등

과 함께 보다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의 올바른 방향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개한 국제학교의 교육프로그램은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교원 교육 등 많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우선 다양한 학교형태의 인정, 학교운영의 자율화, 교육과정의 개방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제학교의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적용하거나 혁신하고자 할 때 학년제와 교육과정 편제, 교과서, 교원임용 등 다양한 제도적 측면의 지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교육에 대한 개방적 사고와 혁신적 마인드이다. 능동적으로 교육의 세계화를 이루고자 하는 의지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을 때 진정한 학교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세계화 전략은 다음과 같은 구도 하에 짜여 져야 한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정주여건의 하나로서 교육조건의 세계화, 그리고 교육을 투자대상으로 보는 교육의 산업화 기조에서 출발하며, 교육적 측면에서는 사회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한 교육체제의 세계화를 그 기조로 삼는다.



[그림] 교육의 세계화 전략

첫째, 교육의 세계화는 경제적 개방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외국인과 그들의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세계화 정책의 맥락 속에서 교육의 세계화 전략이 전개되어야 한다. 그 조건 중의 하나가 바로 외국인 및 그 자녀들이 정주할 수 있는 교육시설이다. 따라서 외국인을 위한 정주여건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국제학

교 등의 외국교육기관을 유치·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만약 이러한 목적으로 제주나 경제자유구역과 같이 경제적 시장개방을 과감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외국교육기관 유치·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교육 세계화 전략은 교육을 ‘교육서비스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과 관련된다. 물리적 자원이 부족한 열악한 환경에서 이를 탈피하는 수단으로서 ‘교육의 다원화를 통한 교육의 자원화’ 전략을 펴는 것이다. 이미 사회에서 교육은 산업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공적 이념과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해 국민들에게 공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육을 산업으로서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엄연히 교육활동은 서비스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고 그 이익도 일반산업에 비견될 만큼 성장한 것이 사실이다. 물론 교육활동을 시장에 맡겨두었을 때의 학생들의 이익에 대해서는 일정한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최소한간섭의 원칙하에 미래 산업의 하나로서 교육산업을 진흥하는 것은 필요한 것인지도 모른다.

셋째, 교육의 세계화는 교육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 교육의 세계화는 곧 교육체제의 다양성을 증가시킨다. 다양한 가치관과 문화를 접하면서 교육의 내용과 형식은 과거보다 더 풍부해지고 교육의 범위와 폭은 더욱 더 넓어진다. 교육의 다민족·다인종·다문화의 사회가 이처럼 안정적이고 평화로울 수 있는 것이 의아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사회 통합적 정책을 펴나가는 중용적 교육정책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 할 수도 있다. 교육의 세계화는 그 자체가 그 나라의 공교육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보다 교육의 형태와 내용을 다양화하는 촉발제가 될 수 있다.

넷째, 교육시장개방이라는 외적 세계화 전략과 더불어 공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내적 세계화 전략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글로벌화에 따르는 교육시장개방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사적인 부문에 맡기기보다는 정부가 공교육의 강화에서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

요컨대, 교육의 세계화 전략은 안에서 밖으로(외향적 세계화), 밖에서 안으로(내향적 세계화), 혹은 교육시장의 개방(외적 세계화)과 공교육의 질 제고(내적 세계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그 각각의 전략들이 균형감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내적 세계화 없이 외적 세계화만 강하게 진행된다면 교육시장은 외국세력에 의해 잠식되고 악용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의 세계화 전략은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교육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성기(2004), 대안학교 학력인정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 31(1), 한국교육개발원.
- 김성기(2005), “International Schools and Special District for Education”, *Globalization & Education Reform*, The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ducation Research.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 김성기, 김익상, 하봉운, 이덕난(2008). 『제주 제주영어교육센터 설립 타당성 분석 및 설립 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보고서
- 김성기, 성열관(2005). 『미래 교육 전망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교육인적자원부
- 박영숙, 김성기, 박경준, 김진화, 김기수(2006). 『한국사회의 미래예측과 교육의 대응전략 모색에 관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보고서
- 박재윤, 김성기, 황준성, 이덕난(2006). 『주요국의 교육규제 및 교육서비스산업 육성정책 실태조사』. 한국교육개발원
- 박재윤, 박찬주, 김성기, 하봉운, 양승실, 조진일, 황준성(2008). 『충남도청 신도시, 홍성·예산 교육특구 지정을 위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성열관, 김성기, 하봉운, 유진호(2005). 『가칭 인천국제학교 설립·운영방안 연구』. 인천광역시교육청.
- 김성기(2003), 도시형 대안학교 운영 특성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1(2), 한국교육행정학회.
- 왕한신, 김성기, 박철희, 유진호(2004).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인천광역시 초·중등교육에 미칠 영향에 관한 연구』. 인천광역시교육청.
- 이시우, 김성기, 고진, 윤달원(2009). 『자율화와 다양화 실현을 위한 교육법령 개정방향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보고서.

- 이종재, 허경철, 김성열, 천세영, 김병주, 김민호, 박종필, 김성기, 이광현, 김왕준(2008). 『제주교육발전 기본방향과 전략적 과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이희수, 김성기, 이해영, 정재창, 조순옥, 이민규, 최익선(2007). 『미래교육 정책 의제 개발』.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보고서
- 조동섭, 김성기, 박철휘, 윤홍주(2008). 『인천 교육비전 2020 중장기 정책방향 연구』. 인천광역시교육청.
- 하봉운, 김성기, 연문희, 김종호, 이율의, 성열관(2006). 『군포 청소년교육특구 연구용역』, 군포시 수탁과제보고서
- 하봉운, 김성기, 연문희, 이율의, 김종호, 최운실, 이장익, 김주아, 성열관, 오상철, 김진곤 (2006). 『2005년도 경기도 교육지원사업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수립을 위한 연구』. 경기도 수탁과제보고서
- 홍영란, 김성기, 정영기, 송동섭(2007).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http://www.ibo.org/>